

박재식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에 기대 높은 저축은행

“‘年 1200억 손실’ 유동성비율 규제부터 해결을”

여·수신 고객 불일치 경우 많아  
고금리 특판 등 왜곡된 영업 초래  
예보료 인하보다 더 현실성 높아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취임 이후 업계에선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업계가 다양한 과제를 건의하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예보료) 인하와 같이 해결이 어려운 과제보다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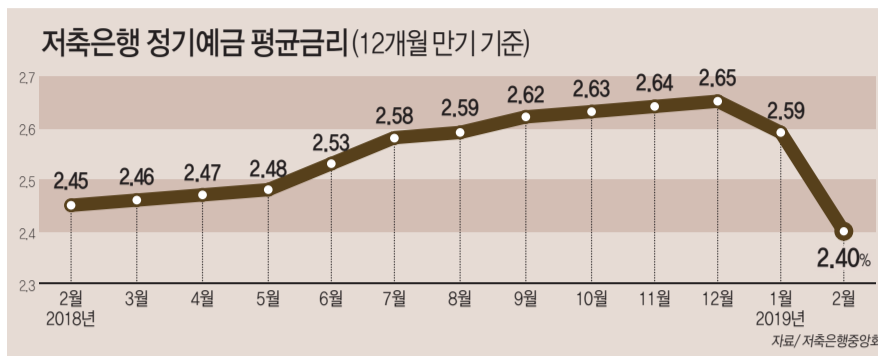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예보료 인하는 사실상 해결이 힘든 과제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업계의 공통 요구사항인 유동성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유동성비율 규제에 따라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예금 등 부채의 상환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유동성 기준을 1

개월로 정하고 있는 시중은행에 비해 과도한 유동성을 보유하게 돼 그에 따른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3년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초과유동성 보유에 따른 손실액을 연간 1172억원으로 추정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에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유동성비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업계로서도 효율적인 사업 전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 요구는 지난 2015년부터 금융당국에 제기



돼 왔다.

금융당국은 그해 5월 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세부적 개선 방안은 저축은행의 유동성 보유 현황과 타 업종에 대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12월 금융당국은 당초 입장을 불수용으로 바꾸며 “유동성 자산과 부채의 기준을 잔존만기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할 경우 지불준비금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비율 달성이 가능해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현재 타업종에서도 유동성 기준을 3개월로 동일하게 규율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의 경우는 유동

성 기준을 1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기준에 따른 것으로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그 이후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업권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비대면 현금인출이 가능한 현재 잔존만기 3개월치의 유동성비율을 관리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며 “연말이면 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왜곡된 수

신 영업 행위가 일어나 역마진자금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중은행의 경우 예금 고객과 대출 고객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축은행은 여·수신 고객이 불일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말 고금리 예·적금 특판 등으로 부족한 유동성 비율을 맞춰야 한다”며 “연말마다 이어지는 치열한 수신 영업경쟁이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65%로, 평균 금리가 2% 안팎에 그치는 시중은행의 저축상품과 큰 금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에서 앞다퉀 출시한 퇴직연금 상품을 통해 수신 자산이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입학 시즌 등 계절적 요인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나 고금리 수신영업을 통해 유동성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것.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축은행의 대출자산은 보통 만기가 3년~5년으로 긴 데 반해 예금은 1~2년으로 짧아 기간의 불일치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지난해 진행된 라이프플러스(LIFEPLUS) 사계절 페스티벌 모습. /한화생명

4월 벚꽃 축제로 ‘사계절 페스티벌’ 시작

한화생명, 얼리버드 티켓 예매 개시

한화생명은 계절별로 연간 4회에 걸쳐 ‘2019라이프플러스(LIFEPLUS)사계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핑크빛 하늘과 감성적인 음악을 한강변에서 즐길 수 있는 LIFEPLUS 벚꽃피크닉 페스티벌이 오는 4월 13~1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공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 4회째를 맞는 벚꽃 피크닉 페스티벌은 매년 4만명이 찾았다.

올해 LIFEPLUS벚꽃피크닉페스티벌의 콘서트 티켓은 얼리버드로 이날 오후 2시 티켓몬스터에서 오픈한다. 일반 예매

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와 YES24에서 진행된다. 가격은 1매(1인)당 5만5000원, 얼리버드 티켓은 10% 할인된 4만9900원이다. 해당 티켓으로 오는 4월 13일 유료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티켓이 없어도 한강공원에 펼쳐질 피크닉 공간, 50개 이상의 플라마켓과 푸드 트럭 등은 누구든지 즐길 수 있다. 행사일인 4월 13일 저녁에는 불꽃 연출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후 8월에는 여름에 어울리는 트로피컬 피크닉을, 10월에는 가을밤 하늘을 수놓을 불꽃 축제를, 12월은 도심 속 겨울왕국으로 변신할 아이스링크 윈터 윈드랜드가 진행될 계획이다. /김희주 기자 hj89@

김광수 號 농협금융, 순익 1.2조 ‘사상최대’

신용손실충당금 22% 줄고  
이자·수수료이익은 늘어나  
은행·증권 ‘역대 최고 실적’

NH농협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이 1조원을 넘어섬에 출범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농협금융은 2018년 당기순이익이 1조 2189억원으로 전년 대비 41.8%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광수 회장은 취임 첫째 해에 사상 최대 실적이란 역사를 새로 썼다.

지난해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규모는 크게 감소했고, 이자·수수료이익 등 영업이익은 늘었다.

신용손실충당금은 7355억원으로 전년 대비 22.1% 줄었다. 반면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은 각각 7조9104억과 1조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4.5% 늘었다.

농협금융의 실적 개선은 주력 자회사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인 은행과 증권이 주도했다.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의 당기 순이익은 각각 1조2226억원과 3609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은행은 전년 대비 87.5%, 증권은 3.1% 증가한 수치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이번 실적은 농업·

농촌 발전이라는 협동조합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농업지원사업비와 1000억원 이상의 사회공헌비를 지출하고도 거둔 성과라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법에 따라 지주의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매 분기 초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작년 부담액은 3858억원이다.

김 회장은 “올해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및 수출 동반 부진으로 국내 경제의 하방압력이 심화할 것”이라며 “실행력 높은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거시적 관점의 리스크지표 분석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경영체질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과 농촌 지원도 더욱 확대해 ‘국민의 농협’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교보생명 ‘컨설턴트 불편지원센터’ 개편

FP 위해 상담기능, 인력 등 확대

교보생명이 자사 재무설계사(FP)들이 보험계약 체결부터 유지·지급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컨설턴트 불편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2년 FP 권익보호를 위해 ‘FP고충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이보다 상담 기능과 인력을 확대해 ‘컨설턴트 불편지원센터’로 개편했다.

고객 아닌 FP를 위해 본사 차원에서 독

립된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해 8월 창립 60주년 기념사에서 “컨설턴트 입장을 절감해 업무상 불편을 적극 개선하고 컨설턴트 영업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상담을 원하는 교보생명 FP라면 사내 영업지원시스템과 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현업부서 담당자에게 전달된다. 전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컨설턴트불편지원협의회에 상정된다. 이는 주요 영업지원 부서 임원과 조직장이 논의해 처리된다. /김희주 기자

NH농협은행, 360명 신규채용

20일까지 농협홈페이지 통해 지원  
서류·필기·면접 등 거쳐 4월 발표

NH농협은행은 14일 지역밀착형 금융 전문가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에 360명 규모의 신규직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공개 채용은 학력, 연령, 전공, 자격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Open) 채용이다. 오는 20일까지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온라인 인·적성,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4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일반 및 IT분야로 나누어 실시된다. 일반분야의 경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협은행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단위로 권역을 구분해 선



NH농협은행은 상반기에 360명 규모의 신규직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한다. 단 IT분야의 경우는 지역 제한이 없다.

특히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에 대해 별도로 채용절차를 진행해 취업기회를 확

대하는 등 농협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안상미 기자